학교체육시설 155개소 3월 1일부터 개방 운영

대한체육회, 전담 관리자도 파견

대한체육회(회장 이기흥) 가 2019년 학교체육시설 개 방 155개소를 3월 1일부터 운영한다.

대한체육회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 업을 통해 참여 학교에 전담 관리자를 파견 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, 시설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.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다.

개방 학교 체육시설은 효율적인 공간 이 용을 위해 자율이용 공간과 회원이용 공간 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. 자율이용 공간 에서는 지역주민이 무료로 운동할 수 있고 회원이용 공간에서는 자율 운동과 함께 생 활체육교실이 진행된다.

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는 방 과 후 체육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 하고 있다. 가족 중심의 체육 프로그램을 통 해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있다.

학교체육시설 개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주민, 학생,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 시를 실시한 결과, 참가자 중 95.8%가 "학 교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을 지속할 의향이 있다"고 응답했다. 주위 추천 의사 또한 94.9%에 달했다.

학교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,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 었으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및 용 품 관리(89.3%), 사업의 취지와 사업 확대 (89.3%) 등에 대한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대한체육회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 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 고,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학교체육시설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추후 개방 체육시설의 종류와 학교 수를 점 차늘릴 계획이다. 양형모 기자

편집 | 안도영 기자 do02@donga.com

대한국학기공협회 전통스포츠 보급 | 서울 삼선초등학교선 '돌봄교실 프로그램' 인기

나는잘났다…소극적인 아이들이 달라졌어요

17개 시·도 초중고·체육관·공원 등 90곳에 지도자 파견 국학기공 보급 권경래 강사 "산만한 아이 차분해져" 손정향 교감 "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"

"자! 이제 단전 두드리기를 할 거예요. 시~작!

"나, 는, 행, 복, 해, 팡팡!"

"나, 는, 잘, 났, 다, 팡팡!" 서울 성북구 서울삼선초등학교 교실에

서는 아이들의 국학기공 수업이 한창이었 다. 강사의 구령에 맞춰 두 손으로 조그만 아랫배를 팡팡 두드리는 아이들이 귀엽기 만하다.

대한체육회의 정회원단체인 대한국학기 공협회(회장 권기선)는 지난해부터 전통스 포츠보급사업을 진행 중이다. 우리 민족 고 유의 전통스포츠이자 심신건강법인 국학 기공을 보급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 위 한 사업이다.

대한국학기공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 해 2월말까지 전국 17개 시·도 초중고등학 교, 체육관, 공원 등 90곳에 지도자를 파견 해 주 1~2회 국학기공 수업을 열고 있다.



서울삼선초등학교 아이들이 강사에게 국학기공 수업을 받고 있다. 국학기공은 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함양,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 윤종혁 PD jh-yoon@donga.com 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강사와 수강생 포함 20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하는 알짜 프로젝트이다.

서울삼선초등학교에서는 1, 2학년 저학 년 아이 대상의 돌봄교실 프로그램으로 국 학기공을 채택했다. 20명 가까운 아이들이 는 것이 보인다"고 했다. 전문 강사에게 국학기공을 배우고 있다. 학 기 중에는 매주 금요일마다, 방학 기간에는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, 한시간반 수업을 총 48회 진행한다.

권경래 강사는 "처음엔 힘들다고 자꾸

앉으려고만 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힘이 붙 어 끝까지 잘 하고 있다"며 "소극적인 아이 들은 자기 목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고, 반 대로 지나치게 산만한 아이들은 차분해지

응이다. 수업을 받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인 최지원, 이빛나, 박규민은 "친구들이랑 같 이 해서 더 재미있다"며 입을 모았다.

심신건강관리에 뛰어난 효과를 인정받 강하다"고 했다. 양형모기자 ranbi@donga.com

고 있는 국학기공은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. 오랜 기간 국학기공 수련을 해오고 있다는 이 학 교 손정향 교감은 "국학기공은 몸과 마음 은 물론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운동이다. 아이들도 "국학기공이 재미있다"는 반 국학기공을 배운 아이들에게서 자기 자신 을 사랑하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 견된다"며 "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일수록 다른 친구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

챔프 꿈 이뤄지던 날…김민우의 '2640'

〈18세 소년이 꿈을 이룬데 걸린 날들〉

로드FC 052서 서브미션으로 승리 타격왕 문제훈 꺾고 밴텀급 뉴챔프 김민우 "상상이 현실로…꿈만 같아"

'2640일.' ROAD FC

18살이었던 한 소년이 책 피언 벨트를 허리에 두르며, 꿈을 이루기까 지 걸린 시간이다. 로드FC 밴텀급 5대 챔피 언에 오른 '코리안 모아이' 김민우(26·모아 고 싶었다"며 "원래 사람이 맞으면 두려움 이짐)의 이야기다.

NG GUNS 1을 통해 데뷔했다. 멀고도 험한 피 터지게, 재밌게 싸우자. 빼지 말자'라는 길을 돌아온 그는 지난 23일 열린 굽네몰 로 생각으로 경기에 나섰다"고 설명했다. 드FC 052에서 '타격왕' 문제훈(35·옥타곤 멀티짐)을 꺾고 밴텀급 챔피언에 등극했다.

소를 지었다. 눈빛을 주고받으며 '더 해보 것 같다"고 말했다. 자'고 말하는 듯했다. 몇 차례 주먹을 주고 받던 중 김민우는 문제훈을 그라운드 싸움 틀전 준비로 잠시 소홀했던 체육관 운영에 으로 끌고 갔다. 끈질기게 문제훈을 옭아매 며 숨통을 조였고, 결국 탭을 받아내며 승 전 주변인들에게도 보답하며 시간을 보낼 리 기쁨을 누렸다.

김민우는 26일 "항상 상상만 해왔던 그

장면이 정말 이뤄지니까 꿈만 같았다. 이기 자마자 형들한테 달려가서 '이거 꿈이야?' 라고 물어봤다"고 말했다. 이어 "형들이 '꿈 아니니까 집중해. 너 지금 챔피언이야' 라고 하더라. 끌어안고 계속 오열했다"고 돌아봤다.

경기 중 미소를 지었던 이유에 대해 묻자 "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. 지든 이 기든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피 터지게 싸우 이 생기고,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 순간에는 김민우는 2011년 12월 3일 로드FC YOU 그저 즐거웠다. 정말 미친 것처럼 '아 오늘

승부를 결정지은 그라운드 싸움에 대해 서는 "(여러 상황을) 다 생각했다. 클린치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할 경기가 시작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습했던 것을 그대로 고, 거리를 재던 김민우와 문제훈은 본격적 했는데 잘 풀렸다. 그래서 그대로 유지했 으로 서로의 얼굴에 주먹을 내리꽂으며 미 고, 그 상황 이후 서브미션까지 잘 이어진

> 챔피언의 꿈을 이룬 김민우는 이번 타이 다시 집중할 계획이다. 또 많은 도움을 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.

해외축구



장은상 기자 award@donga.com 굽네몰 로드FC 052에서 밴텀급 타이틀을 차지한 뒤 활짝 웃고 있는 김민우.

사진제공 | 로드FC

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

경	기 결과						
프	로농구						〈26일〉
•201	8-2019 SKT	5GX KE	3L 팀 :	순위			
순위	팀	경기	승	패	승률	승차	연속
1	현대모비스	46	35	11	0.761	0	1패
2	전자랜드	45	31	14	0.689	3.5	2승
3	LG	45	24	21	0.533	10.5	1승
4	KT	45	23	22	0.511	11.5	1승
5	오리온	46	23	23	0.5	12	1승
6	KCC	45	22	23	0.489	12.5	1패
7	DB	46	22	24	0.478	13	2패
8	KGC	46	21	25	0.457	14	1승
9	SK	45	15	30	0.333	19.5	1패
10	삼성	45	11	34	0.244	23.5	1승

여	자프로농구					((26일)
•201	•2018-2019 우리은행 WKBL 팀순위						
순위	팀	경기	승	패	승률	승차	연속
1	KB스타즈	31	25	6	0.806	0	3승
2	우리은행	31	23	8	0.742	2	1패
3	삼성생명	32	18	14	0.563	7.5	2패
4	OK저축은행	32	12	20	0.375	13.5	1패
5	KEB하나	31	11	20	0.355	14	1승
6	신한은행	31	5	26	0.161	20	1승

Ξ	⟨26	일〉							
◆도드람 2018-2019 여자프로배구 팀순위									
순우	팀	경기	승	패	승점	득점	실점	연속	
1	흥국생명	26	18	8	54	2170	2032	2승	
2	도로공사	26	17	9	48	2295	2173	5승	
3	GS칼텍스	28	17	11	48	2335	2280	1패	
4	IBK기업은행	27	15	12	46	2312	2226	2패	
5	현대건설	28	9	19	29	2164	2300	2승	
6	인삼공사	27	5	22	18	1983	2248	17패	

NBA					〈26일〉
●경기결과					
필라델피아	111-110	뉴올리언즈	밀워키	117-106	시카고
디트로이트	113-109	인디애나	휴스턴	119-111	애틀랜타
피닉스	124-121	마이에미	미네소타	112-105	새크라멘토
멤피스	110-105	LAL	골든스테이트	121-110	샬럿
포틀랜드	123-110	클리블랜드	브루클린	101-85	샌안토니오
LAC	121-112	댈러스			

아마주어 경기결과	〈26일〉
축구 ● M 55회 KBSN배 춘계 대학 축구연영) •결승전=명지대(우승) 2-1 울산대 ● 제 55회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 연맹전(경남 합경 • 결승전= 오사기(우승) 2-1 처안제익고	

•프리메라리가 득점										
	팀	경기수	승점	승	패	무		선수	팀	득점
1	바르셀로나	25	57	17	2	6	1	메시	바르셀로나	25
2	AT마드리드	25	50	14	3	8	2	수아레즈	바르셀로나	16
3	레알마드리드	25	48	15	7	3	3	스투아니	지로나	13
4	헤타페	25	39	10	6	9	4	그리즈만	AT마드리드	12
5	세비야	25	37	10	8	7	4	찰스	에이바르	12
6	알라베스	25	37	10	8	7	6	벤제마	레알마드리드	11
7	베티스	25	36	10	9	6	6	예데	세비야	11
8	레알소시에다드	25	35	9	8	8	8	라울 데 토마스	라요바예카노	10
9	발렌시아	25	33	6	4	15	8	로헤르	레반테	10
10	빌바오	25	33	7	6	12	8	몰리나	헤타페	10
11	에이바르	25	31	7	8	10	8	에스파스	셀타비고	10
12	레가네스	25	30	7	9	9	8	이글레시아스	에스파뇰	10
13	레반테	25	30	8	11	6	8	제이미 마타	헤타페	10
14	에스파뇰	25	30	8	11	6	14)	고메즈	셀타비고	9
15	지로나	25	28	6	9	10	14)	안드레 실바	세비야	9
16	바야돌리드	25	26	6	11	8	14)	윌리안 호세	레알소시에다드	9
17	셀타비고	25	25	6	12	7	17)	뎀벨레	바르셀로나	8
18	비야레알	25	23	4	10	11	17)	모랄레스	레반테	8
19	라요바예카노	25	23	6	14	5	17)	사라비아	세비야	8
20	우에스카	25	19	4	14	7	17)	엔 네시리	레가네스	8
• =	•프리메라리가 경기결과									

19 라요바예카노	25	23	6	14	5	17)	사라비아	세비야	8
20 우에스카	25	19	4	14	7	17)	엔 네시리	레가네스	8
•프리메라리가 경기결과									
	지료	라	0	-	0		레알소시에	다드	
•분데스리가 경기결과									
2	바이프치	ō	1	-	1		호펜하임		

경기 예고					
여자프로농구		⟨27일⟩			
●2018-2019 우리은행 WKBL					
신한은행	〈인천도원〉	우리은행			
오후7시, SPOTV2					

프로배구		⟨27일⟩						
◆도드람 2018-2019 여자프로배구								
도로공사	〈김천실내〉	인삼공사						
오후7시, SBS스포츠								
IBK기업은행	〈화성종합실내〉	흥국생명						
오후7시, KBSN스포츠								

아마추어 경기예고	〈27일〉
축구 ●제 55회 통영배 춘계 대학 축구연맹경영,오후2시) •결승전=성균관대-중앙대	전(경남 통
● 제 21회 백운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(광양) ●8강=전주영생고-매탄고, 수원FC-광양제철고(이상 오전10시 영등포공고, 안양공고-KHT일동(이상 오전11시40분)	시), 금호고-

테니스 ●2019년 여수오픈 테니스대회(전라남도 여수시

진남체육공원)